

치과계 역사에 새로운 획 긋다

치의학회 본격 '가동중'

치의학회 설립되다

2002년 4월, 분과학회협의회에서 김종열 연세치대 구강내과 교수를 치의학회장으로 선출했다. 드디어 치의학회가 본격적인 가동 준비를 마친 것이다.

사실 치의학회가 대동한 것은 이전으로 한참 거슬러 올라간다.

해방전에는 박명진, 신인철, 윤계찬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사에 당시 조선치과의학회가 주동이 되어 1920년에 치과의학회를 결성, 제1회로 조선치과의학회를 개최했다.

해방 후에는 치협에 47년부터 62년까지 치의학회가 존재했으나 새로운 치의학회가 선출되지 않고 치협 학술부회장으로 편입이 됐다.

그러나 규모가 커진 치과계에서 그동안 멈춰있던 치의학회가 다시 가동한 만큼 이번을 치의학회의 설립이라고 봐도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 관계자의 중론이다.

현재 치의학회의 탄생은 공직지부에서 치의학회 설립에 대한 움직임으로부터 시작된다.

물론 공직지부에서 치의학회의 설립에 대한 시도는 있었으나 공직지부와 치의학회는 활동내용면에서나 회원의 규모면에서나 큰 차이가 있다.

대한의학회와 대한한의학회가 창립된 것이 각각 1966년과 1962년, 대한약학회가 창립된 것은 1951년이다. 그리고 대한간호학회가 창립된 것이 1970년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치의학회의 창립은 많은 늦은 편이 사실이다.

이향련 대한간호학회장은 “치의학회가 없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언급했을 정도로 그 출발은 비록 다소 늦었으나 앞으로 해야 할 일, 그리고 이루어낼 업적은 가장 앞서나가리라고 기대해 본다.

치의학회와 공직지부는 별개

앞에 잠깐 언급했듯이 치의학회의 태생적인 한계가 공직지부로부터 발생했지만 치의학회는 공직을 비롯한 개원의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격을 분명히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종열 치의학회장은 지난 5월 21일 치협 회관에서 개최된 초도이사회에서 치의학회와 공직지부가 '별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치의학회와 공직지부를 연결짓지 말 것을 주문했다.

김회장은 이사회에서 “공직지부는 시도지부의 일환으로써 치협의 한 조직으로서 존재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치의학회와 공직지부가 혼선을 갖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남 치의학회 총무이사도 회의에서 “치의학회의 준비위원회, 준비위원회 멤버로 활동해 왔다”며 “공직지부와 치의학회의 관계가 미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묘하게 연결시켜 관련지으려는 경향이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김총무이사는 또 “공직지부는 공직에 있는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하지만 치의학회는 1만8000여명의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학술단체이므로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치의학회의 성격이나 학술 활동 면에서 교수는 어쨌든 '돌아올' 대상이므로 대승적 차원에서 개원의에게 좀더 관심을 두고 개원의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 김회장의 생각인 것이다.

“치협과 유기적 관계 유지”

김종열 회장은 초도이사회에서 “치의학회는 독립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치협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발전해야 하는 단체”라며 “치의학회장 선

거 공약에서도 밝혔듯이 치협과 대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회장은 또 “현재 치의학회장의 입장이 마치 과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재임시와 똑같이 비교된다”며 “당시 내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줘서 국과수가 많이 발전할 수 있었다며 협회장과의 교분이 깊어서 이와 같은 콤비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종열 회장의 현재 가장 큰 고민은 아마도 치의학회의 독립 문제인 것 같다.

그러나 공식 회의석상에서 김종열 회장은 두가지 사안만큼은 분명하게 못 박고 있다.

치의학회를 공직지부와 비교하지 말아달라는 것과 치의학회의 독립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이다.

치협의 학술위원회 업무가 법제위원회나 치무위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다른 위원회의 업무 또한 학술 업무를 배제할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김종열 회장의 설명이다.

사업 개발에 따른 자체적 예산 확보해야

현재 치의학회의 사업을 개발하고 또 이를 집행하기 위한 예산은 준비돼 있지 않다.

현재는 치의학회가 치협의 학술위원회 업무를 이관해서 하고 있는 정도라고 보면 이해가 쉽겠다.

반면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의학회의 예산은 이미 10억에 가까운 규모로 접근했다.

의학회는 2001년 8억 6백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1억 1천만원을 회비로, 의협으로부터 5억원, 병원협회, 서울시의사회, 의정회로부터 7천만원 정도를 보조받아 충당했다.

의학회는 2002년 8억1000여만원의 예산을 정하고 학회당 20만원이던 회비를 50만원으로 인상했다.

한의학회와 간호학회, 약학회의 한해 예산은 3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앞으로 치의학회는 치과계의 학회 발전의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중요한 집단으로 급부상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강화돼야 할 것은 각 분과학회로부

터 회비의 각출일 것이다.

치의학회는 회원으로서 19개 분과학회를 두고 있다. 반면 의학회는 회원으로서 116개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학회를 두고 있으며 한의학회는 32개의 학회로 구성돼 있다.

간호학회는 평생회원으로서 1580명, 연회원으로서 131명이 있으며 약학회는 개인회원이 1500여명이며 단체회원이 70여 단체로 구성돼 있다.

치의학회지 발간, “SCI에 등재시키겠다”

각 단체에서 발간하고 있는 학회지를 한번 살펴보자. 의학회에서는 영문판인 ‘Journal of Korean Med Science’를 발간하고 있으며 한의학회는 대한한의학회지를 발간하고 있다. 간호학회는 국문판인 대한간호학회지와 영문판인 ‘Journal Korean Academy of Nursing’을 발간하고 있다. 대한약학회도 약학회지와 ‘Archives of Pharmacal Research’가 각각 국문판과 영문판으로 발간되고 있다.

이중 영문으로 발간되는 대한의학회의 ‘Journal of Korean Med Science’와 대한약학회의 ‘Archives of Pharmacal Research’가 SCI에 등재돼 있다.

치의학회 집행부는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치의학회지가 당장 발간되기는 어렵겠지만 이번 집행부 임기 내에 국제적인 위상에 맞게 영문으로 된 치의학회지를 발간하고 장기적으로는 SCI에 등재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치의학회지 운영에 대해 김회장은 “치의학회지를 논문중심으로 하며 국내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권위지가 되도록 해 학회지의 논문게재를 모든 연구자가 큰 영광과 소망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회장은 보수교육의 질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갖고 있다.

김회장은 지난 6월 5일 치협 회관에서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치의학회가 특정 그룹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모든 치과 의사에게 서비스되는 학회였으면 좋겠다”며 “그 일환으로서 보수교육 연계를 개발해서 개원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임상내용을 공급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또 "치협의 보수교육으로 저널을 만들고 자 하는 소망도 갖고 있다며 꼭 저널이 아니라도 CD로 제작해 개원의에게 배포하고 개원의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적 치의학에 발맞춰 '정진'

김주환 前구강보건협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문을 했다.

첫째로 회원들의 학회에 대한 사랑이다. 어느 학회나 같지만 학회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위하여서는 회원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더욱 새로 태어난 학회일수록 그 필요성은 강하다.

둘째로 활발한 국제교류에 의한 학회의 위상을 높이는 것도 큰 과제다. 나날이 발전하는 치과의학의 정보를 신속히 흡수하여 각 연구기관 및 치과병원에 전달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회원의 비용부담도 커지

겠지만,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냐고 언급한다.

현재 치협에는 19개의 분과학회가 있다.

이제 모든 분과학회를 아우르고 학회가 보다 활성화돼 치의학이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치의학회가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처음으로 치의학회장 선거를 치른 것, 지난 5월 21일 공식적인 첫 회의인 초도이사회를 개최한 것 등 모두가 치과계 새로운 치의학 역사로 기록되고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의 관심이다. 치의학회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모두들 주시하라. 그리고 담당자들에게 격려를 하고 박수를 치고 활책하기도 해야 한다.

가장 두렵고 무기력한 힘인 '무관심'만 벗어난다면 치의학회는 반드시 치과계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기업을 토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정미 기자〉

인터뷰



김종열
치의학회장

"학술과 관련해서는 독립적이지만 치협과 공동보조를 맞춰 치과계 발전이라는 대승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난 4월 19일 치협에서 개최된 치의학설립준비위원회에서 김종열 연세치대 구강내과 교수가 치의학회장으로 선출됐다.

김회장은 정관에 따라 치협의 학술담당 부회장도 겸임하고 있다.

김회장은 "치협의 前학술 부회장이 치의학 탄생의 산파역할을 했다"며 "앞으로

치의학회의 초석을 다지고 올바른 학회의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는데 주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회장은 한마디로 법치의학 및 법의학의 대가이다.

95년부터 97년까지 내무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99년부터 2001년까지 대한법의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지난 71년부터 현재까지 고려대학교 법의학연구소 연구실장을 맡고 있고 99년부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과장

을 겸임하고 있다.

지난 90년부터 93년까지는 치협의 법제이사를 역임한 바 있어서 법과 관련한 해석능력이 뛰어나다고 정평이 나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으로 재임시 직원을 50명 더 확보하고 30년동안 묵은 일을 모두 처리하는 쾌거를 이룩할 정도로 수완이 좋고 박력이 있으며 매사에 철저하고 다방면으로 뛰어나다.

김회장은 전문치 의제도와 관련 "학계와 개원가의 이해가 상충되지 않도록 공통점을 찾는 해안을 발휘하겠다"며 "전문치의 제도가 국민을 위한 의료전달체계의 핵심이 되도록 하고 전문 치 의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는 분과학회나 회원들의 보완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또 "한국에서 FDI 회장과 APDC 회장이 선출되는 등 걸출한 인물이 탄생된 만큼 이에 걸맞게 국제적인 요구에 부응하며 한국치의학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이외에도 종합학술대회 개최 및 국가시험 관리, 보수교육 등 치의학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성실성을 바탕으로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안정미 기자>

"대승적 협력관계로 발전 이룰 터"